# 原電과 그 부산물의 立地문제

陸 鍾 澈
漢陽大 原子力工學科 名譽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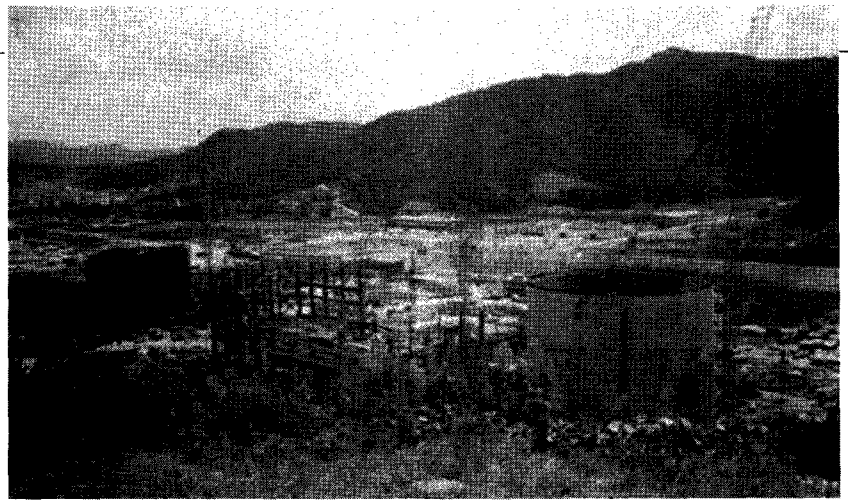
## 머리말

1978년 4월 고리에 60만kW급 PWR형 발전소가 세계에서 21번째로 가동되어 우리나라도 원전보유국으로 등장하였다. 돌이켜 보면 1962년 당시 1인당 GNP 88달러, 전력생산 44만kW에 불과하였으나 오늘날은 최대전력수요량이 18,475천kW가 되었다. 연간경제성장율을 7.5%로 가정할 때 1991년 1인당 GNP는 6,000달러, 전력공급능력 2,100만kW로 급상승하였다. 1인당 전력소비량은 1990년 2,200kW(대만 1987년 3,100kW, 일본 1976년 4,000kW)로 되어 있어 아직까지도 대만, 일본에 비해서 낮은 소비량이라고 하겠다.

현재 국내에 원자력발전은 총9기로 761만6천kW를 생산하여 총발전량에서 그 발전량구성비율로 원자력은 49.1%(52,887백만kWh, '90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고 기타의 구성으로는 유연탄 16%, LNG 8.9%, 석유 17.6%, 무연탄 3.4%, 수력 5.9%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원전에서 나오는 부산물의 방출량은 '90년 1년동안 국내원전 9기에서 총 9,942드럼(200리터용량)이며 이는 중저준위 방사성부산물이라고 구분지워진다. 한편 사용후핵연료는 194톤이고 이는 마치 우리들 가정에서 식생활로 매일 나오는 쓰레기(폐기물) 및 산업폐기물과 같다. 위의 원전부산물배출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712드럼으로 미국 및 프랑스의 840드럼과 1,000드럼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니 원전의 운영관리가 그만큼 철저하였다고 하겠다. 결국 '90년도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 1,196kWh의 원자력전기를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1인당 약 24g의 방사성부산물과 5g의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킨 셈이고 이와 비교해서 '88년 서울시민의 가정폐기물발생량은 1인당 700kg 이상이 됨을 감안한다면 원전의 부산물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원전부산물 매몰입지문제는 '90년 11월의 안면도문제로 그 심각성을 드러내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마당앞에서 묻지 말아달라(NIMBY:Not In My Back Yard)고 외치게된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원전입지선정의 실태이고 더 나아가서 지방관서의 장들도 NIMT(Not In My Term)라 하여 자기임기동안 만이라도



묻지 말아달라니 개인 및 지역주민 이기주의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원전부산물이든 가정의 폐기물이든 그 처리처분은 우리들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로써 이용과 처리처분을 동시에 책임지고 시행해야 함은 당연한 말이고 상식이라고 하겠다.

원전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마침 지난 10월 9일 동자부장관이 발표한 국가장기전력수급계획안을 보면 앞으로 15년 동안인 2006년까지 경수로, 중수로형을 합한 18기의 원전, 1,620만 kW를 발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계획안의 전력수요예측시나리오는 GNP성장율을 '92년~'96년 7.5%, '97년~2001년 6%, 2002년~2006년 5%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서 수요를 전망한 발전량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발전계획과 동시에 원전부산물폐기의 입지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서간에 그 계획안이 연계되어 발표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원래 원전과 그 부산물은 차바퀴와 같고 옷의 안밖, 종이의 표리, 손의 안팎과 같고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음식물섭취와 생리적 배설·폐기와 같은 절대불가분의 동반격이니 동시에 문제시하고 해결해야 하며 한편 원전부산물입지와 관련된 지역주민입장에서 볼 때 그 핵문제·방사선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동일시되기 때문이나 다만 그 취급정부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원전부산물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입지선정, 계획, 설계, 신설, 운영은 동시에 일원화하여 단일기관에서 그 업무를 취급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는 오늘날과 같은 부처별 이기주의, 공리주의가 내면에 깔려있는한 더욱 단일화가 국가에너지수요공급의 차질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물론 원전과 부산물 운영과 이에 대한 인허가 및 규제, 감독 및 보호측면에서는 이원화가 당연하겠다고 믿는다. 이제 앞으로 건설될 18기의 원전입지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立地현황

원전의 입지는 일반공업시설과는 달리 입지조건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입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현재까지 고리, 울진, 영광 및 월성 등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곳은 대규모의 부지확보와 지질·지층조건, 취수원, 기상조건, 해수문제, 해양어류 및 해초문제는 물론 지진문제까지도 충실하게 고려한 입지였고 아울러 인근 주거지역주민의 분포와 생활환경까지 세심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해오고 있는 곳들로 원전입지로는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적지로 선정되었던 곳들이라고 보며 따라서 원전가동후 현재까지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기당 2~3건의 고장 건수만이 발생했다고 한다.

1978년 4월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후 1990년 8월말까지 국내원전에서 발생한 총발전정지회수 278회 중 필요한 정기보수정지 및 간이

보수정지회수도 포함된다. 지난해인 '90년의 불시정지건수는 단 두건이었으니 '85년에 7.5건에 비하면 현저한 감소추세이다.

이러한 낮은 고장율은 그동안의 철저한 안전관리에 기인함이니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선진국인 독일 환경·자연보호·원자로안전성(BMW)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연간 사소한 고장이 모두 200여건에 달했다고 하나 이때마다 규제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물질의 방출은 1건도 없었다니 다행이긴 하나 우리나라 원전불시정지건수와 비교할 때 무려 100배나 된다. 월성 1호기의 이용율이 99.5%/1년('89.4~'90.3)으로 세계원전 2위를 기록하였다는 통계이니 우리국민은 아직까지 모두 원전운전을 신뢰해도 좋다는 하나의 예증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들은 상식적인 용어에 대한 참뜻과 내용을 알아두어야 할 말은 원전의 사고와 고장이라는 단어다. 여기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원전의 「사고」와 「고장」에 대한 혼돈을 피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고」 분류를 위해 최근 8등급으로 분류, 그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국내원전의 「고장」사례를 이 분류기준에 비추어 적용시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위의 8등급 밖에 속하는 「고장」에 해당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자동차의 「고장」과 「사고」의 판이함과 같다고 보면 쉽게 이해되리라고 본다.

다만 '79년 미국 드리마일 TMI원전사고와 '86년 체르노빌원전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소도 원전운전에 대한 불안감과 국민의 반핵운동이 점차 고조되고 확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89년에는 영광원전주변에서 무뇌아가 탄생되었다 하여 일반적 유전병 또는 임산부의 약물복용, 공해식품섭취 등 여러가지 복합적 원인의 소치인 것도 원전탓으로 돌리는 시대적 문제를 남겼으며 급기야는 '90년 11월의 안면도 문제를 비롯하여 '91년 9월 강원도 고성지역의 시위로 이어져 전국에 반핵문제가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깝기 한이 없다.

참고로 원전후보지로서 건설부제6호로 고시된 동자부안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이미 '82년 1월과 10월에 다음과 같이 8개 지역에 용도지정을 해놓고 있는 현황이고 그들 후보지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原電候補地 現況〉

| 地點 | 位置 | 受容可能容量 (MW×基) | 用途 | 推進現況 |
|---|---|---|---|---|
| 이목 | 전남 여천 화양 이목리 | 900×4 | 공업지역 고시 ('81. 10. 10.) | 예비조사 완료 |
| 비봉 | 전남 보성 득량 비봉리 | 900×4 | 공업지역 고시 ('82. 1. 8.) | 〃 |
| 신리 | 전남 장흥 대덕 신리 | 1,200×4 | 〃 | 〃 |
| 장계 | 전남 고흥 도양 장계리 | 1,200×2 | 〃 | 〃 |
| 송공 | 전남 신안 압해 송공리 | 1,200×6 | 〃 | 세부조사 완료 |
| 외립 | 전남 해남 황산 외립리 | 900×6 | 〃 | 예비조사 완료 |
| 직산 | 경북 울진 평해 직산리 | 900×4 | 〃 | 〃 |
| 산포 | 경북 울진 근남 산포리 | 900×6 | 〃 | 세부조사 완료 |
| 덕산 | 강원 삼척 근덕 덕산리 | 900×4 | 도시지역 고시 ('82. 1. 8.) | 예비조사 완료 |

객관적으로 보면 찬핵단체, 찬원전단체와 반핵단체, 반원전단체가 대립되어 마치 正反合의 칸트·헤겔철학과 우리 고유의 전통철학인 음양(十 一, 陰陽), 水·火, 남·여, 凹·凸 … 등 作用과 反作用, 상호모순과 상호 상극(相克)·상생(相生)의 조화작용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다만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마음의 자세는 중용(中庸)의 덕으로 서로가 지나치거나 치우치지도 않은 사리의 정곡(Target, 관역)을 맞추도록 마음을 먼저 비워야 하겠다.

사회의 옳고 그름과 완급을 따질 때 절대적 척도인 성경말씀을 먼저 상기하자. 즉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義)를 구하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는 사리사욕의 이기(利己), 위기(爲己)를 배격하고 그 나라를 위해 의(義)를 구하고 행(行)하라는 계명을 실천하자.

## 立地문제와 反核(反原電)운동과의 연관성

가장 최근 9월 17일 강원도 고성지역과 강릉에서 원전부산물처리장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 울진원전 근방의 가로수에는 도로변의 황금의 물결과 같이 나부끼는 반원전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분들은 각자 착찹한 심정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시간이 약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찬원전인 당국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고성 평파리지역에서는 주민이 살고 있지 않아 원전건설에 마찰이 없을 것으로 보았을 것이고 또 그곳은 발전용수의 확보와 폐수처리도 용이하며 지질, 지각 등 입지조건의 기초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곳 지역주민들과 토론도 하고 설명회, 공청회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것로 생각해 본다.

한편 삼척 근덕면 덕산리 원전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신문보도에 의한 주민들의 의견은 그곳 고성지역은 관광명소라고 반대하나 원전수행기관의 입장은 그곳의 입지조건이 원전에 적합함은 물론 남북통일이 되면 발전송전이 용이함과 유리함을 주장한다. 물론 원전후보지는 동자부, 한전만으로 결정하지는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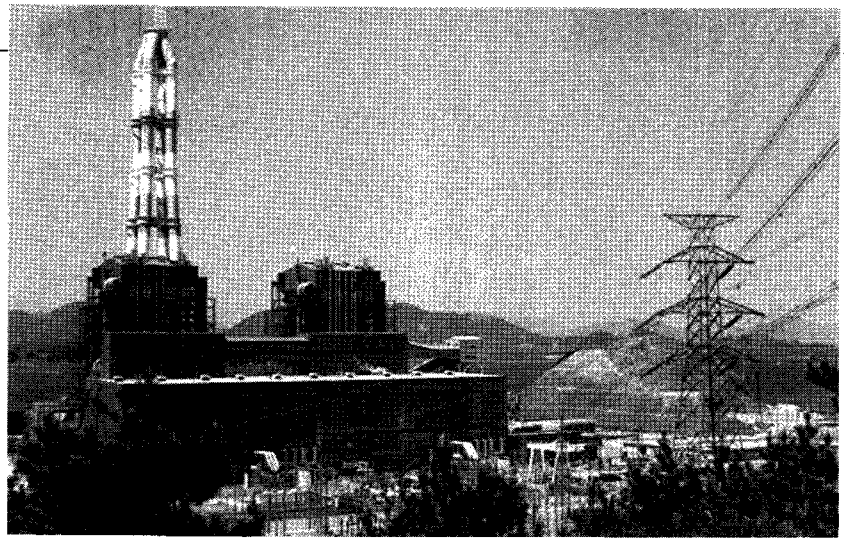
건설부와도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지방산업육성에 따른 공장부지 등 종합적인 연관성을 고려한 결과 '79~'82년까지 원전후보지를 조사, 선정하여 용도지정까지 결정한 곳이 앞에서 〈표〉과 같이 9개소나 된다. 각 후보지별로 그 수용가능발전용량은 900MW~1,200MW급으로 예정하며 각각 2기~6기까지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위와 같이 아무리 그 뜻이 좋고 계획이 훌륭

〈원자력발전소 및 부산물처분장 부지선정시 유의사항〉

| 현황 및 문제점 | 대 책 |
|---|---|
| 1.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 |
| 가. 원자력에 대한 나쁜 선입관 유지 (원자폭탄과 동일시함) | · 원자폭탄과 원자력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차이점 홍보<br>· 원자력관련시설 중 평화적 이용부문 홍보강화 (친근감 유도)<br>· 핵무기관련시설현황 및 이의 안전한 관리실태 설명 |
| 나. 원자력발전소의 고장과 사고에 대한 개념 미비 | · 고장과 사고의 차이 설명(차량, 일반산업체, 전기이용시 등의 예 활용)<br>· 사고의 등급 비교설명(일반산업체와 대비) |
| 다. 언론종사자의 원자력지식 부족에 기인한 원전고장시 언론매체의 과대 혹은 과민반응으로 국민의 오해 유도 | · 정확한 고장(사고)내용의 적극적인 홍보(대중매체 이용)<br>· 언론매체의 신중하고 공정한 보도자세 촉구 |
| 라. 우리의 기술수준에 대한 의구심 | · 최근의 경제침체 및 국제수지악화로 국민들의 자신감 상실(과소비 조장) 되었으나 이의 조속한 회복 필요<br>· 일제치하에서의 2등국민의식 및 자기비하(사대주의)의식 척결<br>· 국민 각 계층간의 위화감 혹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 해소 |
| 마. 급속한 공업화, 현대화에 대한 국민들의 과학적 상식(사고방식)수준 미달 | · 지속적인 과학교육으로 국민의식수준 향상<br>· 대중매체를 통한 과학상식 전파 |
| 2. 지역 주민들의 이해 상반 | |
| 가. 토지수용시 수용지역주변주민들의 반발 | · 수용지역주민들의 적절한 보상<br>· 수용지역주변주민들의 보상요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 |

| 현황 및 문제점 | 대 책 |
|---|---|
| 나. 지역소득증대가 기대감에 못 미침 | · 원전산업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지역주민 고용기회를 증대시킬 것<br>·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추진(관광지 조성, 농공단지 조성 등) |
| 다. 원전시설로 인한 상대적 피해의식 상존 | · 원전시설주변의 지가상승세 둔화 또는 하락 및 기타 사업의 침체(관광, 농수산물가격 등)가 우려됨으로 특정 지구화시켜 지속적인 개발추진<br>· 실제피해가 확인될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음 |
| 라. 집단민원화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위상이 상승되었다는 잘못된 생각과 원전사업자(모든 관련공기관 포함) 권한 밖의 사항으로 해결에 장시간소요 및 상급기관의 이해부족에 따른 사기저하 | · 지역주민에게 균등한 이익의 배분(예:제세공과금 인하)으로 집단민원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것<br>· 민원발생시 명확하고도 정확한 사실규명 및 이의 적극적인 홍보필요<br>· 정부측의 민주적이고 강력한 원자력시행정책이 필요함 |
| 3. 현 원자력홍보 및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 | |
| 가. 하향주입식 일방적 홍보를 거부반응 | · 홍보일정 사전협의 및 대상자의 승인하에 정중한 공문발송으로 초청 또는 방문일정을 인지시킨 후 대화식으로 전개(홍보요원의 전문지식습득과 인격이 요구됨) |
| 나. 홍보요원부족으로 소수인을 상대로 한 심층홍보 애로 | · 중요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홍보분야를 최소한도 원자력의 건설, 발전 그리고 보수차원과 동등하게 간주하여 지역주민수에 비례한 전담요원배치로 신뢰감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 |
| 다. 지역주민의 홍보에 대한 무관심과 예산부족으로 반대급부(경제적 수혜)없는 홍보전개에 애로 | · 원자력안전성 등 기술적인 홍보에 앞서 발전소측과 지역민 사이에 인정이 스며드는 인간적 유대관계를 강화한 다음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서로의 어려움을 공동인식하는 계기를 자주 갖을 것 |
| 라. 과학적인 홍보결과분석 미실시 | · 여러 어려움이 있겠으나 객관성을 확립하고 원전사업을 경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보수행부서가 아닌 제삼자가 홍보결과를 상급기관에서 공개, 비공개적으로 조사하여 수시 궤도조정을 권고(단, 기술 및 정책자문에 그쳐야지 인사 또는 상벌사항에 관련되어서는 안된다) |
| 마. 전문용어의 사용빈도 많아 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촉진 | · 원전이 대개 농어촌의 낙후된 지역에 위치함으로 타지역에 비해 생활 및 학력수준이 비교적 낮으므로 사소한 언행에도 자격지심을 유발, 대화거부자세를 보이니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말로 겸손하게 대화하도록 홍보요원의 교육강화 |
| 바. 원전주변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비중 미약 | · 발전소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시관을 방문하는 손님이 지역주민보다 타지역인이 많은데 차후 원전인근지역전주민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초청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 |
| 사. 사회적 민원유발시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지만 한시적인 경향에 그치고 말 뿐 홍보업무를 전원자력사업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결여 | · 부서별, 과별 또는 개인별로 지역 또는 기구별담당제를 설정하여 홍보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홍보 전개<br>· 특별 경조사에 참석함으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두텁게 하여 신뢰감조성<br>· 주기적인 관리카드점검 및 현장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인사에 반영<br>· 최소한도 부서별 특별홍보일을 전개, 분기 1회씩 가두 및 가정방문홍보전개(유인물 배포, 질의응답, 애로사항 청취, 발전소운영현황 안내설명 등) |



하다 해도 작금의 주민의 반원전 목소리를 무시하고 독선적감행은 금물이고 보면 특히 원전 부산물처리에 관한 한나라 전체의 총체적 국민합의를 이루도록 정부당국은 인내와 극기심으로 마지막까지 애민, 위민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기서 울진원전본부장과 보건물리부장 및 여러간부들의 가장 소중한 체험에 의한 대민문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오니 관계당국과 원전입지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각항에 대하여 꼭 명심하여 주기를 바란다.

무릇 민주화시대라하여 나라의 장래를 위태롭게 해서도 안되며 국가경제성장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전력수요는 이에 부응하여 많아짐은 상식적 추이니 전원개발이야말로 절대 불가피한다. 이제 반핵(반원전)쪽 의견을 펼치는 분들에게 묻건대 원전건설에 반대한다면 그의 대안으로 현재 어디서 어떻게 전력을 얻을 것인가.

EC공동체라면 돈으로 전력을 사면 되겠지만 우리의 입장은 그렇지도 못하다. 물론 기존의 수화력을 증설하고 또 화력의 공해방지시설을 투자강화하고 그 이용율, 효율을 높이며 열병합발전을 도입함도 바람직하고 LNG의 이용, 석유의 이용, 유연탄·무연탄의 이용도 좋지만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전원개발과 전력수요공급면과 그 효율성, 경제성 및 안정성, 공해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역시 기존의 원전도 다른 발전구성과 같이 계속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하자원의 부족으로 수입에너지에 대한 지출이 과다해질 수도 있으며 경제입국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원가에 있어서도 kWh당 원전 4.2센트, 석탄 4.5센트, 가스 5.2센트, 석유 6.9센트로 이 수치는 미국에너지개발협의회(USCEA)에서 1991년 1월에 발표된 값인데 이는 「개량형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경제성 비교」라는 제목하에 발표된 비용이다.

위에 언급된 에너지원 이외에도 태양열, 소수력, 조력 및 풍력 등 소에너지원연구개발도 급하고 중요하니 당국은 이들 무공해소에너지원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함을 당연한 과제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대단위발전용량은 원전인 것은 부정 못하니 우리들은 여러가지 고통과 부담을 나눌 수 밖에 도리가 없다. 무릇 모든 문명의 이기에는 이익과 손상·위해가 따를 것이다. 오늘날 자동차의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산업폐수, 폐기물로 인한 피해, 농약피해, 대도시의 공기·물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모두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도 인내하고 참고있지 않은가. 다만 원전부산물은 방사선안전관리문제가 가장 우리들은 물론 후손까지도 장해를 초래하니까 더욱 세심하고 정밀하며 지성으로 방사선방어문제(Radiation Protection)를 과학기술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함에 정부나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협력하여 국민보건에 이바지해야 한다.

## 맺는말

위의 말씀을 토대로 원전, 부산물처리·처분장의 立地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권하고자 한다.

1. 관련부서와 정부는 무엇보다도 과속으로 밀어붙이기작전과 같이는 말아주십사하는 것이다. 매사에는 완급이 있고 quick·quick-slow라는 말대로 사랑의 인내와 화해로 위민, 애민의 치정을 해주길 바란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춘풍(春風)이면 백성들은 풀잎과 나뭇잎에 해당한다는 논어의 말씀과 같고, 햇님과 바람과의 경쟁우화를 다시 회고하고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행인의 옷을 벗긴 것은 「강풍」이 아니고 따뜻한 햇님의 「빛살」이라는 교훈을 다시 새겨보자. 돌이켜 보면 과거 없는 현실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난날의 위정자나 공직자의 비리와 재벌과 가진자의 횡포 등에서 보듯 극히 일부라고는 하나 이 나라 정치풍토와 삶의 환경을 오염시켜 정치의 기본강령 중 가장 중요한 족신(足信)을 잃어 버렸으니 먼저 이 足信(論語 : 足食·足兵·足信)을 회복하여 진정코 위민·애민정치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실감나게 할 수 없는가. 이 명제를 해결함이 현 시점에서 원전입지확보에 우선 되어야 할 지상과제라고 본다.

三綱五倫·五常의 인·의·예·지·신에서 이 신(信)자는 사람 인(人)자와 말씀 언(言)자의 결합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은 신망을 얻을려면 자기만의 이기적 권리, 명예욕과 탐욕을 즉각 버려야만 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당국자들이 솔선하여 그 악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이타·위타주의(利他·爲他主義)를 솔선 실천하는 심령개조가 이루어져야 함이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해결방법 중 원천적이고 견본인 것을 재삼 강조하고 제의하며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면면히 이어오는 우리들 국조(國祖) 단군성군의 「敬天愛民」의 개국이념을 지도층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전국토, 전국민이 춘풍·순풍에 돛달아 어기여차 영화로운 선민·성민(選民·聖民)임을 세계만방에 나타내고 선민의 나라 축복을 누려보세.

우리가 꼭 지켜야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고 진리이다. 위정자나 지도자의 말씀은 공약(公約)으로서 하나님과의 공의(公義)의 약속이니 空約이 되지 않게 「必死則 必生」의 심령과 참됨으로 「자기의 十字架를 진다」는 마음자세로 나아가면 인심은 천심(天心)으로, 人心이 仁心의 어진 마음이 되어 사랑과 순종의 도(道)를 실천하게 되니 정부시책에 순종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보배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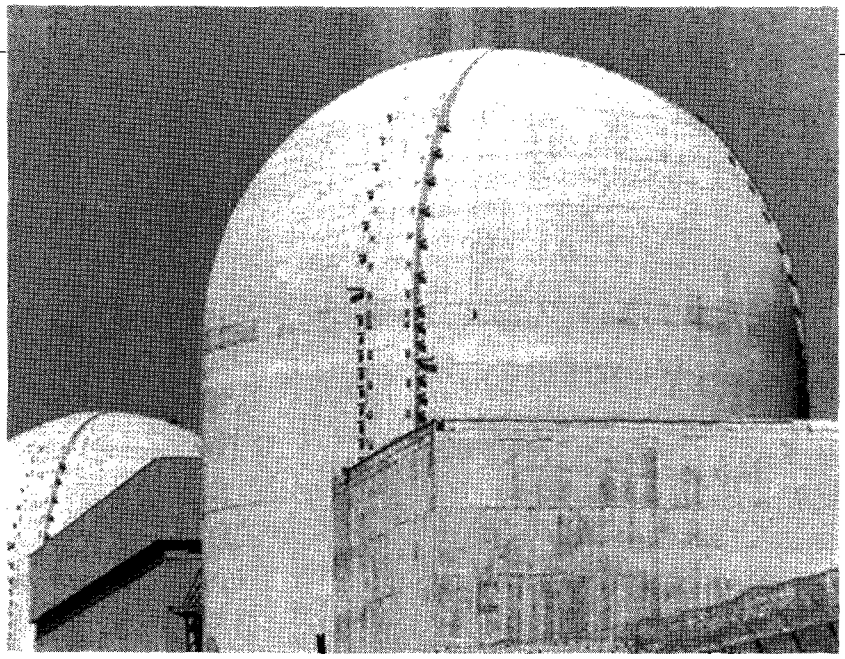
이렇게 상하·행종 모두가 서로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경외(敬畏)하면 원전 부산물입지는 사소한 문제로 되어 단번에 해결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시행주체자는 주민, 국민과의 끈질긴 인내와 자제로써 사랑의 대화로 합의될 때까지 해야하며 더우기 지방자치단체구성원은 물론 그곳 주민의 대표, 관공서의 모든 임직원들이 위와 같은 심령(心靈)으로 사랑의 이타·위타사상에 기초하여 대민대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2. 해당지역주민은 앞으로 입지가 도시 근교가 되든, 도서지방 또는 골프장 밑이 되든 산중 동굴속이 되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처럼 되어서 지역집단이기·위기주의로 흐려거나 소리(小利), 사리(私利)에 눈이 어두워져서 대리(大利), 대의(大義)인 이 나라경제와 국력을 낭비하고 쇠(衰)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자기지역에 돈벌이가 되는 산업, 공장은 유치하고 이권이 없는 시설물은 배척하는 이기·위기의 썩은 심령의 병(病)은 즉각 고쳐야 한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自己의 有益을 求치 말고 남의 有益을 求하라(고린도전서 10:24)」는 성경말씀을 명심하고 실행하자.

만약에 원전을 무조건 취소한다고 하여 과거 '50년, '60년대의 빈곤과 고통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들이 그 지도층당원들이 이기·위기주의로 인해서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함으로써 결국 자기들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들은 현재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왜 무너지는지.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 지식과 재능은 이제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빛나고 있으며 더우기 '88 올림픽이나 북방외교 등으로 동방의 등불이 이미 켜졌으니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복된 터전을 더욱 빛내야 할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공의(公義)에 입각한 사랑과 순종의 대도(大道)을 우리 모두 실천하여 원전부산물의 입지문제도 이 진리로 해결하자. 또한 「먼저 너희는 나라와 그 의(義)를 구하라」는 성경말씀을 다시 강조하여 찬원전·반원전의 외침 이전에 우리 모두의 심령을 개조하여 중심사상, 양심과 천성의 성품 되찾기 운동을 펼치면서 원전부산물입지문제를 해결하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전도서 3:1)』에서 우리들은 원전 및 부산물 입지에 대한 토론할 때가 있으면 결정할 때가 있어야 하고 이 때를 실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맛볼 때가 오리니 「君子以하야 사환 예방지(思患豫防之)하나니라」는 역경 기재괘(旣濟卦) 상전(象傳)말씀을 상고하면, 이는 水火旣濟卦니 불 위에 물을 준비하여 화재의 재난을 예방하라는 말씀이다. 水火가 상극(相克)할 때가 있고 相生할 때가 있음이 만유의 진리이니 우리 모두는 이 진리로 유비무환의 철학을 실천하자.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국력의 기본인 이 에너지수요공급의 차질을 미리 예방하자는 말이다. 그 복잡한 원전의 핵심부인 원자로의 순조로운 가동시에는 결국 이 물·불의 조화로운 순환임을 깨달아야 하며 소우주인 우리들의 인체의 오장육부 중에서도 水자는 신장, 火는 심장으로 이 수·화의 조화작용이 기본이 됨을 알아야 하겠다. 이 조화가 깨어질 때 인체의 기능은 마비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반원전·찬원전도 이 원리로 보면 현재는 水火相克에 있다. 다만 때가 성숙되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인사(盡人事)에 대천명(待天命)할 뿐이다. 올바른 진·선·미의 심령으로 말이다. 다만 우리 모두에게 경계로써 「末世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立) 줄로 생각하는 者는 넘어질(倒)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11~12)」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계하자. 따라서 이 나라를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먼저 위정자·지도자는 足食(의·식·주), 足兵(국방), 足電(에너지), 足信(믿음)의 4대 요강(要綱)을 충족시키도록 해야함은 영원한 치세제민(治世濟民)의 도(道)임을 다시 깨달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